법무매거진

靑 선거개입 의혹 규명하라… 변호사 475명 시국선언

People and Law

법무뉴스

변호사 475명이 지난 2월 1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원들이 2019년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소속 변호사 등 475명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변은 작년 9월 ‘조국 사태’ 때도 시국선언을 했었다.

한변은 청와대가 “지난 1월 두 차례의 검찰 대학살 인사를 통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범죄 수사를 무력했다.”며 “지난 1월 10일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법치주의를 도륙(屠戮)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리 변호사들은 법치의 보루로 남아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검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이용우, 배기원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이 동참했다.

(출처/조선일보)